

미술시대

MISOOLSIDAE

3

2013
THE ART MAGAZINE
MISOOLSIDAE



21세기 현대작가 시리즈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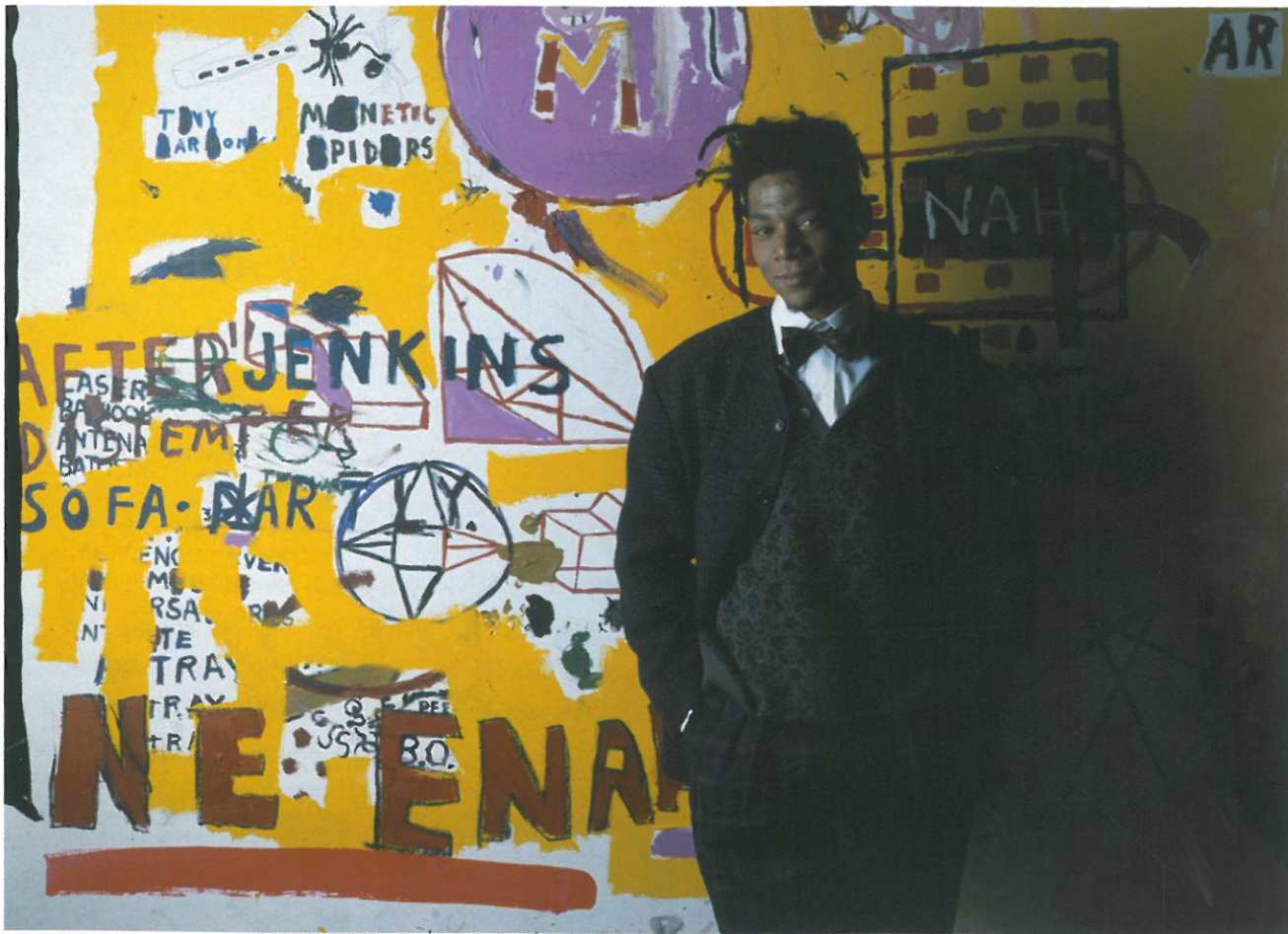
LEE YOUNG

Kim Young-Shin, You Sung-Suk
Choi Mi-Ae, Kim Cho-Hye

장 미셸 바스키아전

2013. 2. 14- 3. 31 국제갤러리 2관(K2)

국제갤러리(02-735-8449)는 미국미술의 신표현주의 및 신 구상회화의 대표적인 작가 장-미셸 바스키아 (Jean-Michel Basquiat)전을 개최한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짧은 생애의 작품활동 시기에 따른 주요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지난 2006년에 이은 두번째 국제갤러리 개인전이다. 전시 참여작품들은 80년대 미국 팝아트의 부흥에 따른 대중적인 아이콘(예를 들면 당시 흑인으로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음악가 찰리 파커, 야구선수 헝크 아론)을 상징적으로 나타냈으며, 시대적 하위문화의 정치적이고 자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Jean-Michel Basquiat (c) Julio Donoso_Sigma_TOPIC

검은 피카소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바스키아의 천재성은 현대 회화의 대가장 뒤뷔페, 샤이 톰블리, 그리고 잰스퍼존스)들과 함께 거론 되기도 하였는데 정규미술교육을 받지 않은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들의 구성과 조합은 평론가들에게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의 작품 주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해부학의 도상들이 그려진 작

품은 7살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비장을 들어내야 했던 시절 어머니로부터 선물 받은 '그레이의 해부학' 책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이는 추후 전통적인 미술언어에 구애 받지 않은 바스키아만의 독특한 작품 언어에 근간이 되었다.

장-미셸 바스키아는 1960년 미국 뉴욕주의 브룩클린에서 중산층

회계사이자 아이티인 아버지와 푸에르토리코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으며, 1988년 만28세의 나이로 뉴욕 자택에서 코카인 중독으로 요절했다. 대략 7-8여 년의 짧은 그의 작품 활동기간은 당시의 미국 미술계의 큰 영향을 끼쳤다. 만화가와 시인을 꿈꾸던 바스키아는 15살 집을 나와 17살이 되던 해 학교를 그만 두었고, 이후 그의 친구 알 디아즈와 함께 떠돌며 스프레이마커나 오일크레용을 사용해 뉴욕 소호 거리의 외벽, 지하철 등에 사회적으로 저항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남겼다. 그들은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작품과 함께 늘 남겨지는 흔적, 곧 태그(tag) 되었던 '세이모'(SAMO-흔해빠진 쓰레기란 의미의 약어)란 이름을 통해 비평적인 행위로서 작품을 이어갔으며 이는 추후 바스키아의 회화에도 등장하게 된다.

당시 비주류의 정서와 문화의 주요한 표현수단의 시발이 되었던 그래피티(Graffiti) 곧 낙서는 시인이 되고 싶었던 바스키아의 바람에 따른 표현의 수단으로서, 도시를 캔버스 삼아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인상과 감정을 순간적인 상황에 따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그래피티가 현대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매김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바스키아는 미술 외에도 다방면에 걸쳐 많은 재능을 보였는데 디자이너로서 작품이미지를 티셔츠에 도안하여 판매하기도 하였고, 버려진 재료로 주얼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나아가 음악과 퍼포먼스를 행하는 밴드멤버로서 80년대 아티스트의 거점이 되었던 머드클럽, 클럽 57에서 활약했다.

주요전시로서는 1980년 '타임스 스퀘어쇼'(Times Square Show)를 통해 이름을 알렸으며, 이태리 갤러리 아르테 에밀리오 마초리(Galleria d'Arte Emilio Mazzoli)에서 'SAMO'란 이름으로 첫 개인전을 열었다. 이후 뉴욕의 PS1 (현재의 PS1 MoMA) '뉴욕/뉴 웨이브' 전을 통해 1985년 뉴욕타임스에 주목 받는 작가로 회자되었다. 이외에도 카셀 도큐멘타7(Kassel Documenta)에 최연소 작가로 참여, 1983년에는 휘트니비엔날레, 1984년 뉴욕현대미술관(MoMA) 전, 1984년 메리본 갤러리(Mary Boone Gallery)개인전 등 다수의 갤러리 및 미술관 전시에 참여하였다. 국내에서는 1991년 경주 아트선재센터에서 앤디 워홀과의 2인전, 국립현대미술관 순회전 등이 있다.

▲ Lung · Acrylic on wood · 244 x 140cm · 1986

▼ Hand Anatomy · Acrylic, oilstick and paper collage on canvas with tied wood supports · 152.4 x 152.4cm

